

# 전남도립도서관 벽면에 문자와 기호가 쏙 빠진 이유는

### “일본어 지워달라” 민원 잇따라 한글·영어 등 112자 모두 없애 공공디자인에 고민없는 결정

전남도립도서관 벽면에 새겨진 글자 120자가 돌연 삭제됐다. 도서관은 8년 전인 2011년 개관 당시부터 전국 최초로 책 모양을 형상화한 한옥형 지붕, 남도 대표 작가 작품으로 기둥을 세워 눈길을 사로잡았던 ‘디자인’ 건물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서관은 건물 상단부 벽면에 새겨진 ‘일본어’ 표기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반감

등으로 문제가 되자, 최근 1500만원을 들여 ‘일본어’ 뿐 아니라 같은 위치에 새겨졌던 한글·한자, 영어 등 모든 글자를 통째로 지웠다. ‘건물 상단에 새겨진 일본어를 지워달라’, ‘왜 건물에 일본어를 새겨놓았냐’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홈페이지에 잇따랐다는 것이 도서관측 설명이다. 도서관측은 처음에는 ‘모든 지식은 문자와 기호에서 나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세계 여러나라의 문자와 기호를 새겼다는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여러나라 문자 중 왜 일본어가 포함됐느냐’, ‘한글 모음은 왜 5개 밖에 없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을 찾지 못했다.



삭제되기 전 건물 상단부에 한글 모음과 일본어가 새겨져 있다.

그러다 건물 설계에는 없었지만 당시 전남지사의 지시를 반영해 문자와 기호를 새긴 사실을 건립 자료를 뒤지던 중 파악했다.

8년 전, 198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2000㎡)로 도서관



일본어 등 문자와 기호 표기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자와 기호 112자가 쏙 빠졌다.

을 세울 때 외벽 상단부에 한글 자음과 모음 일부, 영어(BOOK), 중국어(天地人), 일본어(ライブラリー·라이브러리)를 새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리), 기호(+ - × ÷) 등 112자문자를 새겨놓은 게 ‘잊혀진’ 지시를 받아 임의적으로 제작했다는 얘기가.

도서관은 국립국어원·한국일본어학회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국어·일본어 전공 교수,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를 거쳐 문자와 기호를 삭제했다. 애초 ‘일본어’만 지우려고 했다가 건물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112자 모두 없앴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전남도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만한 디자인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위와의 조화나 전체적 건물에 대한 고민 없이 내려진 ‘즉흥적’ 결정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건환경연구원 부적정 구매·계약 광주시 감사위, 무더기 적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정한 구매·계약 처리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절차를 거치고 시약류 15억원어치를 수년에 걸쳐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시약류 구매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해 행정상 조치 3건(주의)과 신분상 조치 50명(경징계 2, 훈계 46, 주의 1, 기관경고 1) 등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2017년 의료기기 제품 21종과 유해화학물질 42종, 2018년 의료기기 제품 39종과 유해화학물질 44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업체 2곳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단가를 정했고, 전년도 계약자에게 지속해서 물품을 구매해 특혜 의혹과 물품 단가 적정성에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들 2개 업체와 체결한 시약 규모는 지난 2017~2018년 동안 15억8000만원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뇌물 제공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체 2곳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기 및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 시약류를 판매할 수 없는 계약 상대자를 계약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시약류를 구매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특화상품 전복·피조개 분말 매장 입점식

### 나주혁신도시 자연드림...아이쿱 생협 230여곳서 판매

전남어촌특화상품으로 개발된 전복과 피조개 분말 상품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정받아 29일부터 아이쿱 생협이 운영하는 전국 230여 자연드림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날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자연드림 매장에서 입점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입점식에는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한정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최연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오인숙 꿈꾸는 아이쿱생협 이사장, 오

한식 (주)남도수산 대표,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원장, 김영수 (주)바다엔 대표, 이희환 여수안포 어촌계장, 용인순 해남 순호 어촌계장, 손홍주 함평 석두 어촌계장, 진평화 고흥 신평개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어촌특화상품은 2017년부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촌·지역 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개발한 것이다. 어촌에서 그동안 싼 가격에 중간 도매업

체에 넘겼던 수산물을 손질·건조·냉동 등 1차 가공 후 지역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업은 질 높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어촌특화상품의 자연드림 매장 입점으로 전남 수산물의 친환경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고, 수산물 판로를 넓혀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지역 기업들도 OEM 방식을 통해 상품 구조를 정착,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시에 개발계획안 제출 금호타이어가 29일 스마트시티 조성을 담은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광주시에게 제출했다. 개발계획안에는 42만㎡(12만7000여평) 규모의 광주공장 부지에 ‘광주형 스마트시티’ 도입을 비롯해 항공강·장륙속도를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설립, 기존 상권 활성화 등이 담겼다. 금호타이어는 개발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면 부지매각을 통해 이전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동시에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갖춘 신공장 건립 추진 등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개발계획안은 자문사인 미래에셋

대우와 용역사인 딜로이트, 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오시티가 참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금호타이어-미래에셋대우’ 간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발계획안 제출은 공장 이전 프로젝트의 첫 단계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검토·평가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금호타이어가 수용하면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은 “개발계획안 제출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지역정가

## 최영환 광주시의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필요”

광주시의회 최영환(민주·비례·사진) 시의원은 29일 “한 참 성장 할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급식비 평균이 공립유치원보다 498원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광주시 288개 유치원 급식비 평균은 한끼당 1907원이다. 공립 130개원 평균은 2180원, 사립 158개원 평균은 1682원이다. 또 광주시 전체 유치원의 40.97%인 118개 원 급식비가 평균보다 낮게 책정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품비가 1000원 밖에 되지 않는 곳도 7개 원이나 된다. 최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광주와 5개도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평생 어부바 신협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